

대학병원

후쿠오카대학 병원



1972년에 의학부가 신설되어 1973년 8월에 개원했다. 2011년 1월에 신관을 개원했으며, 현재는 후쿠오카 시영지하철 나나쿠마선 후쿠다이마에역과 직결되어 있고 후쿠오카 도시고속도로 순환선이 개통되면서 교통편이 크게 향상되었다.

진료면에서는 뇌졸중센터 등 다수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23개 진료과가 각 분야를 초월한 진료체제로 팀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본 병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의 의사와 응급구조대의 의뢰를 365일 24시간 접수받는 의료를 목표로 지역과 밀접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신관동 옆에는 300석 규모의 후쿠다이 메디컬 홀, 전시공간이 설치된 후쿠다이 플라자, 산책과 휴식에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탈 가든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건강과 식생활 교육, 신약 개발, 의료의 연계를 실천한다.

[진료과] 중양·혈액·감염증내과, 내분비·당뇨병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교원병내과, 신경내과·건강관리과, 정신신경과, 소아과, 소화기외과, 호흡기·유선내분비·소아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뇌신경외과, 심장혈관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마취과, 치과 구강외과



후쿠오카대학 지쿠시병원

2013년 5월 7일 병원을 새롭게 개축하였다. 총면적 26,016㎡, 지상 9층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진구조)이며 허가 병상은 310개, 21개의 진료과가 있다.

ICU, HCU, SCU 등 집중치료실의 확충으로 더욱 고도의 의료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소아 병동을 신설함으로써 소아 응급 의료지원사업의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 한층 더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IBD센터, 뇌졸중센터, 호스피스센터, 외래화학요법실, 재활센터 등 충실한 의료환경이 정비되었다.

[진료과] 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 ·

당뇨병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소아과, 외과, 소화기외과, 호흡기외과, 정형외과, 류마티스과, 뇌신경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응급과, 마취과, 재활치료과, 병리진단과



후쿠오카대학 하카타역 클리닉

후쿠오카대학 하카타역 클리닉이 2016년 4월 21일, 하카타역의 새 랜드마크 KITTE하카타 8층에 개원했다. 후쿠오카대학 병원과 후쿠오카대학 지쿠시병원과 연계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목을 주로 진료하고 있다.

①여성의료 (여성전용공간에서 여성 의사와 여성기사가 진료)

유선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항문과, 정신과 진료, 기미와 모반, 주름, 탄력저하 등을 개선하는 미용의료, 유방암과 부인과 검진 등을 실시한다.

②로봇 수트HAL®을 이용한 재활·운동요법

뇌졸중 후유증, 척추장애, 신경계 난치병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요법을 하고 있다. 로봇 수트HAL®을 장착하고 움직이고자 의식하면 로봇이 뇌 신호를 인식해서 손발 등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보조한다.

③전문외래

일반진료 외에도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순환기 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비롯한 각종

상담 외래와 이차 의견을 실시한다. 그중에서도 다리(발)의 전반적인 트러블에 대한 종합적 진료와 발 케어는 새롭게 도전하는 외래이다. 또 해외 여행자를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